

주일 예배 11시

2017년 10월 29일 (다섯째 주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동진 형제

*찬송 주님의 시간에(623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59번 다 함께

*찬송 여러 해 동안 주 떠나(278장) 다 함께

기도 김영자 권사

찬송 십자가 군병 되어서(353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예수 그리스도: 7. 참 포도 나무(요한복음 15장 5절)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287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11월 예배 순서 담당자: 순서 담당자는 당일 10시 20분 기도회에 참석바랍니다.

사회: 김성진 집사 기도: 하재혁 집사(5일), 김영자 권사(12일), 현윤경 집사(19일), 김동진 형제(26일)

- 금주 읽을 성경:시편 17-23편,

- 기도해 주세요-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마태복음 21 장에 나오는 벧바게 맞은편 마을에 있던 어느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준비하였는데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 다닌 분은 결단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아마도 빈들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분임에는 틀림없을 줄 압니다.

마음에 진정한 것 없고, 그 무엇 없는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으로 임하여 오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 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내 주님, 내가 품고 싶은 내 주님! 어인 일인지 의지하고 싶은 내 주님, 사랑하므로 마음에 가지고 싶은 내 주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짐으로 돌아가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품고 산 것 같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세상의 염려가 그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어두움이 그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 모신 그 밝은 마음으로 나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은 밝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이젠 주님 위하여 조그마한 가난한 삶이지만 섬김까지 준비하고 싶어했던 그런 자인 줄 압니다.

이런 생활은 다른 말은 안 해도 벌써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살고, 주님을 주님답게 경배하며 살고, 나의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를 무슨 말로 표현할까요? 벌써 주님께 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박성규

누구나 원하는 한 가지 소원
바로 나 자신이 변화 되는 것
소원이 있으나 늘 발목을 잡는 것은
미련을 버리지 못함이
어리석음인 것을...

누구나 바라는 한 가지 희망
지금 나의 소중한 것을 움켜잡는 것
바램은 내 안에 있으니
늘 허공을 맴도는 것은
때 묻은 자아를 포기하지 못함의
우유부단함인 것을

누구나 기다리는 한 가지 약속
어젠가 내가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
넘치는 복을 바라나 늘 넘어지는
어린 아이인 것을
젓만 먹는 아기처럼
치유되지 못함인 것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완고한 땅을 기경하고
땀 흘려 눈물로 씨를 뿌림은
시온의 대로에서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주님 모신 삶

장욱자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보좌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좋은 꿀을 먹고 살립니다.

나를 십자가에 던져 묻어 버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
나무의 영양을 공급받으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립니다.

예수님의 좋은 밭으로
매일 매일 주님을 마음 판에 새기며
늘 항상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립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밝은 마음과 늘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10월 29일(43주) 31권-43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